

發明의 날은 法定紀念日로 制定되어야 한다

發明의 날 制定의 當爲性

發明의 날은 法定 紀念日로 制定(부활)되어야 한다.

이는 오늘을 사는 企業人 및 發明家는 물론 全國民의 願望같은 念願으로, 아무리 強調해도 지나침이 없다.

물론 각종 法定 紀念日을 統閉合하는 마당에 새로운 法定 紀念日의 制定을 주장하는데는 異見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요하지 않은 것을 없애는 것 못지않게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는 不變의 眞理로서 再論의 餘지조차 없다.

사실 發明의 날을 法定 紀念日로 制定해야 한다는 주장은 때가 늦어도 너무 늦은 感이 없지 않다.

또 發明의 重要性에 비추어 發明의 날을 制定하지 않는 당국의 政策 또한 失策이었다 할 수 있다.

이는 發明이 社會 全般에 미치고 있는 影響이 立證해주고 있다.

現代는 누가 뭐라해도 發明의 時代이다. 우리의 日常生活이나 社會生活에 發明의 惠澤을 받지않은 分野는 거의 없으며, 또한 發明의 힘을 빌리지 않고 움직이는 分野도 거의 없다.

發明은 우리의 生活과 社會와 世界에 깊고 密接하게 관계하고 있으며, 커다란 影響을 주고 있다.

이러한 發明은 한 國家에 있어서의 國防의 힘이 되고, 經濟의 힘이 되고, 또 外交의 힘이 되어 國力의 커다란 基盤과 背景이 되고 있다.

그래서 發明의 水準이 높으면 強大國 및 先進國이라고 하며, 그것의 水準이 낮으면

弱小國 및 後進國이라고 부른다.

오늘날 世界 各國이 훌륭한 發明家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절실하게 要望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先進國 대열에 참여하려고 總力을 기울이고 있다. 商品輸出은 물론 資源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보다 많은 發明家를 養成하여 우수 發明을 創出해 내는 것이다.

이는 外國의 경우도 例外가 아니다. 日本 등 오늘날의 先進國들은 이미 50여년전부터 각종 發明行事を 國家的 次元에서 實施해 오고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先進國을 誕生시켰다.

發明의 重要性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比重을 더해가고 있다.

이는 날로 加重되어가는 先進國들의 知的財産權開放壓力만으로도 충분히 說明이 되고 남는다.

따라서 發明의 날의 法定 紀念日로의 制定은 각종 法定 紀念日 統閉合에 필히 이루어져야 할 大題라 할 수 있다.

따지고보면 發明의 重要性은 예나 지금이나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는 관계 당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1957년 第1回 發明의 날 行事が 치뤄질 때만해도 發明의 날은 國家가 치루는 行事 중에서도 가장 큰 行事였었다.

1957년 2월 26일 官報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商工部告示 第256號를 통해 『國民의 發明思想을 昂揚하며 科學技術의 普及 向上 및 發明事業의 獎勵를 圖謀하고자 「發明의 날」을 다음과 같이 定한다. 단기 4290년 2월 26일. 商工部長官 金一煥, 發明

의 날 5월 19일』이라고 告示하고 있다.

또 이날 第19次 國務會議에서 당시 李承晚大統領은 諭示를 통해 『發明者나 發明品을 尊重하고 獎勵하되 물론 名譽도 必要하겠지만 賞도 주고 經濟的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이니 發明品을 生産함에 있어 정부나 민간에서 크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強調했다.

이어 第1回 發明의 날 다음날인 1957년 5월 20日 중앙청 광장에서 열린 發明의 날 紀念行事에는 서울의 경우 商工部·文敎部·交通部長官을 비롯하여 당시 特許局長 등 5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紀念式에서 李大統領은 諭示를 통해 『근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發明을 많이 해내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기쁜 일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工業과 産業이 發展하려면 무엇보다도 새 發明이 지금보다도 더 많아야만 속히 진전되 나갈수 있을 것이니 좋은 發明이 많이 나오도록 정부와 민간에서 많이 도와서 우리나라를 發展시켜 나가는데 다같이 힘써 나가도록 오늘 第1回 「發明의 날」을 맞이하여 많은 발명가에게 치하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부탁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發明의 날 紀念 行事는 全國的인 行事로 정부수립 이후 가장 큰 行事로 손꼽히고 있다.

서울 중앙청 광장 行事에서는 大統領 諭示·敎務部長官 紀念辭·民議院 副議長 祝辭에 이어 ▲發明品 企業化 및 優良商標表彰 ▲發明의 날 制定委員 表彰 ▲發明의 날 制定 紀念 發明家の 成功談·發明思想 涵陽을 위한 論文·放送劇·作文·發明의 노래·標語 현상모집 入賞者 表彰 ▲大統領下賜煙草傳達 및 紀念品授與 등이 있었다.

또 地方에서는 道廳소재지 단위로 紀念式을 가짐과 함께 全國 各級學校단위로도 行事를 가졌다.

이와함께 全國에 發明의 날을 紀念하는

포스터와 標語 貼付·베라撤布·선전담 현수막 建立·애드버룬揭揚을 비롯하여 新聞에 特別談話 發表 및 特別記事 의뢰, 放送에 紀念放送·放送劇·放送音樂(發明의 노래)을 의뢰 實施했고, 保健社會부와 協調於昌慶苑에 發明의 집을 建立하고, 遞信부와 協調 紀念郵票 및 스탬프를 發刊하고, 各道단위로 發明思想昂揚에 관한 學生翁변대회등을 開催하여 全國이 發明의 날 行事의 熱氣로 가득했다.

이같은 全國的인 發明의 날 紀念行事는 1959년 第3回 行事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1960년 第4回 行事는 4·19학생의거로, 1961년 第5回 行事는 5·16군사혁명으로 流産되고, 1962년 第6回 行事부터 1965년 第9回 行事까지는 1959년 第3回 行事부터와 마찬가지로 韓國發明協會 主催로 開催되었다.

또 1966년 第10回 行事부터 1972년 第16回 行事까지는 大韓發明協會 主催로 開催되었는데, 1966년 第10回 行事때는 오늘날 法定 紀念日의 기초가 된 「第1回 科學技術者大會」도 같은 날 開催되었다. 따라서 科學의 날은 發明의 날의 分身이라 할수 있다.

16회까지의 行事가 치뤄지는 동안 世宗大王이후 끊겼던 發明思想이 서서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靑天날벼락인가.

發明界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1973년 3월 20일 國務會議 審議를 거쳐 大統領令 第6615號로 公布된 各宗 紀念日에 관한 規定은 發明의 重要性을 忘却하고 發明의 날을 商工의 날에 統閉合하고, 發明의 날의 分身인 科學의 날(4월 21일)을 法定 紀念日로 公布했다.

우리는 여기서 科學의 날을 法定 紀念日로 公布한데 대해 異論을 提起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科學의 날 制定의 重要性도 認定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發明의 날 制定도 科學의 날 制定 못지않게 重要하고, 發明의 날

과 科學의 날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나 世界的인 추세로 미루어 볼때 그 어떤 法定 紀念日 보다도 重要的만큼 하루 빨리 發明의 날을 制定하여 두 行사가 盛大하게 치뤄져야함을 強調하는 바이다.

1973년 각종 紀念日등에 관한 規定 審議에서 發明의 날이 제외된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당시 發明의 날 行事を 主擧하던 大韓發明協會가 財政難으로 實質 業務能力을 상실하여 發明의 날 制定建議조차 할 수 없는 立場이었고, 이에 따라 全經聯이 주축이 되어 胎動중이던 韓國特許協會도 이제 겨우 胎動단계라서 發明의 날 制定을 建議할 수가 없었다.

雪上加霜으로 오늘의 特許廳도 당시에는 商工部 特許局에 불과하여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發明의 날이 歷史의 뒷章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束手無策이었다.

이렇게하여 73년부터 發明의 날은 사라졌다. 뜻있는 企業人과 發明家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계속적인 建議에도 사라진 發明의 날은 오늘날까지 깊은 겨울잠을 자야했다.

그러나 1976년 12월 31일 法律 第2957號로 公布된 정부조직법 改正에 의거 1977년 3월 12일 大統領令 第8483號에 따라 商工部 特許局이 特許廳으로 승격되면서 서서히 일기 시작한 發明振興의 重要性은 第5共和國이 出帆하면서 本格化되어 1982년 特許廳 公告 第82-12號에 의거 發明의 날 行事に 버금가는 「全國發明獎勵大會」로, 새로 誕生한 韓國發明特許協會가 主管이 되어 特許廳 主擧로 實施해 오다가, 1986년부터는 韓國發明特許協會가 主擧하고 特許廳이 主管하는 식으로 바뀌 오늘에 이르고 있다.

行事日은 1957년에 制定된 發明의 날인 5월 19일로 하고 있다. 이 行事때마다 韓國發明特許協會는 發明의 날이 언젠가는

부활되리라 확신하며 비록 法定은 아니지만 그 回數를 빠짐없이 늘려가고, 對外的으로는 「全國發明獎勵大會」로 치뤄오고 있지만 內的으로는 發明의 날 紀念行사로 끈질기게 지켜오고 있다.

이는 發明의 重要性이 社會 全分野에 擴散되면서 男女老少 수많은 發明家와 企業人들의 한결같은 念願을 外面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發明의 날 制定의 當爲性은 이제 더 이상 再論의 여지가 없다.

國內外的 여건으로 미루어 보나, 앞으로 정부가 指向해 나갈 政策方向으로 보나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大題임에도 더 이상의 說明이 必要치 않다.

이에 第6共和國에 거는 기대는 실로 크다.

새로 出帆한 第6共和國은 大統領을 비롯하여 전 각료가 國民의 소리에 귀를 기울려, 그 여론을 政策에 最大限 反映할 것을 機會있을때마다 強調해 왔다.

그렇다면 이제 企業人과 發明家 그리고 國民들의 「發明의 날」 法定 紀念日 制定에 대한 熱氣가 얼마나 뜨거운가를 신속히 파악, 서둘러 發明의 날을 法定 紀念日로 制定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본다.

發明의 날의 뿌리

發明의 날의 由來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1957년 당시만해도 國內 最大 法定 紀念日이었던 發明의 날이 1973년 歷史의 뒷章으로 사라진것은 커다란 失策이었다.

그러나 發明의 重要性은 發明의 날의 商工의 날 統閉合의 不運속에서도 韓國發明特許協會와 관계 당국에 의해 계속 強調되어 이제 우리나라의 發明獎勵事業도 상당한 水準에 이르렀다 할 수 있다.

發明의 날 紀念 行事로 시작하여 迂餘曲折 끝에 發明獎勵大會로 치뤄지고 있는 行事も 全國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이 行사와 함께 주요 發明獎勵事業의

발명특집

일환으로 치뤄지고 있는 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와 全國初·中學生 發明 作文·만화 현상모집을 비롯하여 10餘個의 크고 작은 각종 發明獎勵事業들도 서서히 國民속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이제 이 事業들을 活性化하여 發明富國

을 건설, 世界속의 先進韓國으로 부상하는 길은 오직 서둘러 發明의 날을 法定 紀念日로 制定하는 것 뿐 달리 方法이 없다.

위 記事에서와 아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發明의 날 紀念行事는 온갖 迂餘曲折 속에서도 끈질기게 이어져 오고 있다.

<表> 發明의 날 行事 開催 내역

年度	主催	主管	後 援	場 所	参席者	施 賞	其 他
1回('57)	商工部 文教部 內務部		韓國發明協會·大 韓商工會議所·大 韓技術總協會	中央廳광장 (5월20일 10:00)	商工部長官등 5,000여명	發明品企業化 및 優良商標 表彰, 發明의 날 制定委 員 표창	·大統領諭示 발표 ·商工部告示 256 號(57.2.26)로 制定 ·大統領談話 발표
2回('58)	"		韓國發明協會·大 韓商工會議所·大 韓技術總協會	중앙청야외음악당 (5월19일 10:00)	商工部長官등 5,000여명	發明品展示會 및 商標展示會 입상 자 표창	
3回('59)	韓 國 發明協會	商工部 文教部 內務部	大韓商工會議所· 大韓技術總協會· 國產獎勵會	시 공 관	商工部長官등 1,500여명	發明賞 시상	
4回('60)							·4.19 의거로 무기 연기
5回('61)							·5.16 혁명으로 행사중단
6回('62)				商工會議所강당	"		
7回('63)				국 민 회 당	"		·商工部長官談話 발표
8回('64)	韓 國 發明協會			드 라 마 센 타			
9回('65)	"			삼 일 당		發明賞 및 功勞賞 시상	
10回('66)	大 韓 發明協會			市民會館소강당	商工部長官등 500여명	發明費·獎勵賞· 管理費·功勞費 시상	第1回 科學技術者 大會 동시 개최 (‘科學의 날’ 기 초가 됨)
11回('67)	"			"	"	發明賞·獎勵賞· 功勞賞 시상	
12回('68)	"			"	"	發明賞 시상	
13回('69)	"			"	"	"	
14回('70)	"			"	"	"	
15回('71)	"			"	"	發明賞·意匠賞· 商標賞·獎勵賞 시상	
16回('72)	"			"	"	優秀發明賞 시상	

'73~'81 大統領令 第6615號(1973.3.30) 각종 紀念日 등에 관한 規定에 의거 중단

17回('82)	特許廳	韓國發明 特許協會		世宗文化會館 소 강 당	經濟企劃院長 官등 500여명	發明振興有功者및 特許管理企業體시상	特許廳公告 第82-12號
18回('83)	"	"	商工部·科學技術 處	"	國務總理 등 500여명	"	特許廳告示 第83-12號
19回('84)	"	"	"	"	"	"	
20回('85)	"	"	"	"	商工部長官등 500여명	"	
21回('86)	韓國發明 特許協會		商工部·科學技術 處·特許廳	"	商工部次官등 500여명	"	
22回('87)	"		商工部·特許廳	"	商工部長官등 500여명	"	
23回('88)	"		"	"	"	"	
24回('89)	"		"	"	"	"	

발명특집

- * 1978. 12. 16 第1回 優秀發明·發明수기·特許管理사에 입상(第4回 전국 초·중학생 작문·만화 현상모집 시상식과 同時)
1979. 12. 14 1979年度 優秀發明·特許管理·표어·포스타 시상(第5回 전국 초·중학생 작문·만화 현상모집 시상식과 同時)
1980. 12. 18 1980年度 優秀發明·特許管理業體 시상(第6回 전국 초·중학생 작문·만화 현상모집 시상식과 同時) 特許廳
·韓國特許協會 共同主催
1981. 12. 2 1981年度 第4回 發明獎勵大會(優秀發明·特許管理業體 시상) (第7回 전국 초·중학생 작문·만화 현상모집
시상식과 同時) 主催: 特許廳 主管: 韓國特許協會
- * 特許廳 創設 - 1976. 12. 31 法律 第2957號 政府組織法 改正
1977. 3. 12 大統領令 第8483號

發明的 날 制定 趣旨

第3代 大統領 취임사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韓民族은 自古로 發明하는 才能이 있어 5백여년 전부터 金屬活字·測雨器·거북선등 어느 國家 어느 民族보다 먼저 發明한 史錄이 있고 建國以來로 나날이 發明하는 件數가 增加一路에 있는 此際에 先祖 때부터 繼承된 國民의 發明思想을 昂揚하여 科學技術의 普及向上과 發明事業의 獎勵를 圖謀코저』 發明的 날을 制定하여 이날을 紀念하고자 한 것이다.

5월 19일 選擇한 理由

測雨器와 發明的 날

發明的 날을 選擇하기 위하여 1957년 2월 6일 商工部長官 主宰하에 李丙熹·黃義敦·李仁·李根澤·李瑄根·申奭鎬·周利會·金相謙·李采鎬·金載元·金浩植씨등을 委員으로 選定하여 審議한 결과 金屬活字·測量器·거북선등 先祖들의 發明品 發明日이 對象이 되었으나 金屬活字와 거북선은 發明한 사람 또는 發明日이 明確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世上에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選擇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産業과 관련이 많고 世界的으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測雨器의 發明的 날인 1441년 5월 19일을 擇하고, 매년 5월 19일을 發明的 날로 決定했다.

測雨器의 史錄

世宗實錄에 의하면 1441년 5월 19일 世宗大王의 말씀가운데 『近年以來 世子(文宗)가 雨魘을 憂慮하여 每양 雨後에 빗물이 땅에 스며들어간 分數를 알고자 땅을 파봤으나 그 分數를 正確히 알수가 없어서 銅器를 만들어 宮中에서 雨水의 深淺을 試驗하였다고 發表한 일이 있었다. 이것이 動機가 되어서 그해 8월 18일 戶曹로부터 測雨器 사용에 대한 規例 奏請이 있었고, 또 이듬해인 世宗 24년 5월 8일 再次 戶曹로부터 최종적인 規例를 上奏하여 결국 實施하게 되었든 것이다. 其規例에 의하면 ① 京中에는 鐵器를 만들되 長을 周尺 1尺 5寸 直徑을 周尺 7寸으로 하고 이것을 書雲觀「天文臺」에 臺를 設置하고 臺上에 그것을 놓아 두고 降雨의 量을 測定케 하는 동시에 晴雨의 日時와 水深尺寸 分數를 알리게 할 것 ② 各地에 있어서는 亦是 鐵器의 測雨器와 周尺各件式을 各度에 보내서 各官으로 하여금 한결같이 中央測雨器 體制에 의하게 하되 測雨器는 鐵器외에 磁器 혹은 瓦器를 使用케 하여 各各舍庭中에 置하고 雨水를 測定하여 亦是 時雨의 日時와 其測定分數를 즉시 朝廷에 알리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歐洲에 있어서는 測雨器의 發明을 이때에는 夢想조차 못하였던 것으로서 其後 약 2백년이 경과한 1639년 6월에 伊太利 「베네데로카스텔리」씨가 測雨器를 가지고 雨水의 深淺을 測定한 일이 있다』고 記錄하고 있다.

制定 經過

1957년 2월 22일 第19次 國務會議에서 每年 5월 19일을 「發明의 날」로 定하고, 同月 26일 商工部告示 第256號로서 公布하였다.

당시 李承晩大統領은 發明의 날 制定 諭示를 하기도 했다.

發明의 노래 製作

第1回 發明의 날 紀念 行事의 일환으로 현상모집한 發明의 노래 현상모집에서 당선 작이 나오지 않고 가작 2편(金基邦·유시필)만이 나와 정부는 시인 조지훈씨에게 작사를, 작곡가 김동진씨에게 작곡을 의뢰하여 發明의 노래를 製作하여 널리 보급했다.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는 이 노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發明의 노래

1. 해돋는 東方에 이룩한 나라
반만년 역사가 文化로 빛나네
귀한 傳統 이어 받은 겨레의 슬기를
펼쳐서 온겨레에 새빛이 되자
후렴 발명은 우리 자랑 민족의 소망
人類의 榮光으로 노래 부르자.
2. 눈부신 世紀에 외치는 겨레
즐기찬 정성이 文化로 꽃피네
캐어내도 다함없는 創造의 큰 힘을
다듬어 새 누리에 先驅가 되자

第1~3回 行事內容

第1回 發明의 날 行事

主催: 商工部·文敎部·內務部

後援: 韓國發明協會·大韓商工會議所·大韓技術總協會·都下 各 通信 新聞社

日時: 1957년 5월 20일

行事內容: 5월 20일 오전 10시 중앙청 광장에서 紀念式을 했는데 大統領 諭示·文敎部長官의 紀念辭·民議院 副議長의 祝辭에 이어 發明品企業化 및 優良商標 표창

· 發明의 날 制定委員 표창· 현상입상자 시상· 大統領 하사 연초전달 및 기념품 수여가 있었다.

또 地方에서는 道廳소재지 단위로 紀念式·各級 學校단위로 紀念式이 있었다.

이밖의 行事는 다음과 같다.

▲ 宣傳 啓蒙

포스터 및 標語 貼付·삐라 撒布·선전담 및 현수막 建立·에드벌룬 揭揚

▲ 新聞報道

商工部長官의 特別談話文 발표·各新聞社에 대하여 發明에 관한 特別記事의뢰

▲ 放送

紀念放送·放送劇·放送音樂(發明의 날 노래)

▲ 현상모집 입상자 시상

發明家의 成功談(당선작 1·가작 2)·發明思想涵養을 위한 論文(당선작 1·가작 2)·放送劇(당선작 1·가작 1)·作文(가작 3)·發明의 노래(가작 2)·標語(가작 5)

▲ 發明의 집 建立

於昌慶苑(保健社會部와 協調)

▲ 紀念우표·스탬프發行(遞信部와 協調)

▲ 發明의 노래 製作

작사: 조지훈(시인)

작곡: 김동진(작곡가)

▲ 雄辯大會 開催

各度 단위로 發明思想昂揚에 관한 學生 雄辯大會 開催

第2回 發明의 날 行事

主催: 商工部·文敎部·內務部

後援: 韓國發明協會·大韓商工會議所·大韓技術者總協會·都下 各 通信 新聞社

日時: 1958년 5월 19일

行事內容: 5월 19일 오전 10시 중앙청 광장에서 紀念式을 했는데 大統領 諭示·敎務部長官 紀念辭·民議院 議長 및 中國 大使의 祝辭에 이어 發明家 및 優良商標 표창· 현상입상자 시상· 大統領 하사 연초전

발명특집

달 및 기념품 수여가 있었다.

또 地方에서는 道廳소재지 단위로 紀念式·各級 學校단위로 紀念式이 있었다.

이밖의 行事는 다음과 같다.

▲ 宣傳 啓蒙

포스터 및 標語 貼付·선전담 및 현수막 建立

▲ 新聞報道

發明的 날 特別談話발표·新聞記事 特別 取扱(社說등)

▲ 放 送

紀念放送·放送劇·放送音樂(發明的 날 노래)

▲ 현상모집 입장자 시상

發明思想昂揚을 위한 論文(가작 1)·放送劇가본(가작 1)·講演會 開催(主題:發明과 工業·獨逸科學의 現況)

▲ 展示會 開催

第4回 發明品展示會 및 第3回 優良商標展示會 開催(1958.5.15~6.3)

▲ 紀念우표 發行(遞信部와 協助)

第3回 發明的 날 行事

主管:商工部·文敎部·內務部

主催:韓國發明學會

後援:大韓商工會議所·大韓技術總協會·國產獎勵會·都下 各 日刊新聞社

日時:1959년 5월 19일

行事內容:5월 19일 오전 11時 30分 市公館에서 紀念式을 했는데 商工部長官 및 文敎部長官의 紀念辭·民議院 議長의 祝辭에 이어 發明賞수여·IAC援助計劃에 의한 기증도서 인수·大統領하사 연초전달 및 기념품 수여가 있었다.

또 地方에서는 道廳 소재지 단위로 紀念式·各級 學校단위로 紀念式이 있었다.

이밖의 行事는 다음과 같다.

▲ 新聞報道

第3回 發明的 날에 즈음한 商工部長官 特別談話·發明思想昂揚을 위한 論文발표·特許局 業務報告·優良國產品에 대한 紙

上展示會·各 日刊紙에 特別記事의뢰

▲ 放 送

뉴스 및 發明的 노래 放送·좌담회 開催·강좌·라디오 드라마 放送

▲ 宣傳 啓蒙

선전담 建立·아취 建立·현수막 게양·포스터 및 標語 貼付·學生胸章佩用

▲ 發明家 士氣昂揚

科學映畫 上映·發明家위안회 開催

▲ 展示會 開催

第5回 發明品展示會 및 第4回 優良商標展示會 開催(1959. 5. 16~5. 25)

草創期 發明的 날 行事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草創期 發明的 날 紀念行事는 全國의인 行事로 정부 및 一般國民은 물론 新聞·放送의 반응은 실로 대단했다.

당시의 盛大했던 行事 一面을 살펴본다.

1957년 5월 21일 字 조선일보는 社說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第1回 「發明的 날」

20日 記念行事 盛大히 舉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발명의 날」 다음날인 20일 상오 10시부터 중앙청 광장에서 「제1회 발명의 날」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김(金)상공부장관을 비롯하여 최문교부장관이 교통부장관등 관계관 다수 참석리에 상공부 특허국장 이윤모(李允模)씨 사회로 개최된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경과보고와 별항과 같은 이대통령 유시를 김상공부장관이 대독한 후 발명가들에게 표창장과 상장을 수여하였다.

그리고 기념품이 전달되고 각계의 축사와 「발명의 노래」가 제창된 후 주악으로서 11시 30분 식은 폐회되었다. 그런데 이날의 포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李元植(自動車製造機) ▲郭喜榮(코로이드質 고무充填劑 製造機) ▲林虎林(水道

用 自動給水) ▲金載鴻(自動謄寫機) ▲鄭龍俊(自動糶摺機) ▲李福永(改良샤들) ▲林弘奎(石塊부록크)

이대통령은 20일 중앙청 광장에서 거행된 제1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다음과 같은 유시를 보내었다.

대통령 유시

우리 한민족은 자고로 발명하는 재능이 많아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자랑할 수 있는 많은 발명품을 옛날에도 남의 나라보다 일찍 발명한 것이 많으니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도 못할적에 우리는 금속활자 측우기 거북선등을 발명했었고 그 외에도 역사상 찬란한 유물을 많이 남겼었던 것인데 근년에 와서 40년동안 나라를 빼앗겨 남의 노예생활을 하여 우리의 문화가 짓밟히고 뒤떨어져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문명을 발전시킬수 없게 되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나라를 도루 찾아서 첫째 우리나라가 점점 발전해나가도록 모든 국민이 다 함께 힘써 나가야만될 때 이므로 우리 국민은 우리 조상으로 부터 전해 받은 좋은 재능을 남의 나라보다 먼저 해서 우리역사에 찬란한 영광을 빛나게 한것보다도 더욱더 빛나게 되도록 해야만 될 것이다.

근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 발명을 많이 해내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기쁜 일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업과 산업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새 발명이 지금보다도 더 많아야만 속히 진전되 나갈수 있는 것이니 좋은 발명이 많이 나오도록 정부와 민간에서 많이 도와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다같이 힘써 나가도록 오늘 제1회 『발명의 날』을 맞이하여 많은 발명가에게 치하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부탁하는 바이다.

단기 4290년 5월 19일 대통령 리승만

또 1957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全國新聞은 일제히 行事 記事와 함께 社說·特輯·企劃物을 실었다.

다음은 1957년 5월 19일자 한국일보 社說이다.

創見을 끊임없이 鍊磨하라

＝「發明의 날」을 맞아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紀念하는 第1回 「發明의 날」이다. 4290년 5월 20일에 中央廳 廣場에서 盛大한 紀念式을 舉行하기로 된것이다. 이 科學時代의 發明事業을 助長發展시키기 爲하여 이 「發明의 날」을 制定하고 또 公開한 紀念行事를 한다는 것은 實로 意義가 깊은 企圖라 하겠다.

「發明의 날」로 制定된 이날은 무슨날이나 하면 距今 5백50年前(西紀 1441年) 世宗 23年 4월 29일 即 陰曆으로 換算한 5월 19일의 測雨器發明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어느나라보다도 우수한 發達이 있어 어느나라보다도 우수한 發明이 許多하였던 것이다. 남먼저 活字를 發明하였고 남먼저 龜船 即 鐵甲艦을 發明하였던 것이다. 이 測雨器의 發明까지해서 세가지의 發明은 世界 어느 民族의 發明界에 比하여도 넉넉 자랑하고도 남음이 있을 훌륭한 發明의 大業績인 것이다. 하나는 文化普及을 爲한 手段으로의 發明이요 하나는 戰鬥力 強化로써 外敵을 退治하는 手段으로서의 發明이며 또 하나는 農業國으로서 自然科學的發展을 意味하는 發明인 同時에 國利民福을 복돋워주고자 自然의 運動을 人工으로 征服하려는 基礎調査上 手段으로의 發明이었으니 이 3大發明은 實로 偉大한 功績이었다. 이 세가지 發明中에서 特히 測雨器發明日을 「發明의 날」로 制定한 것은 그 發明의 日字 記錄上에 뚜렷하고 또 民主產業에 寄與한 바 意義가 큼에 依據함이라 하는 首肯할만한 理由의 制定이라고 본다.

오늘에 생각하건대 이 測雨器의 發明만 하더라도 伊太利人에 依하여 歐洲에서의

測雨器를 처음 發明한 것보다는 實로 200年을 앞선 것이다. 그때의 그런 엄청난 創見을 所有하였던 民族의 聰明과 예지로써 그 뒤에 連綿한 新發明이 繼續되지 못하고 中斷되어 오늘의 西歐科學文化의 發達에 비해 後進國의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實로 痛恨할만한 事實이다. 앞으로 歷史的 傳統的인 天才的 發明의 素質을 더욱 發揮하여 科學文明의 先進者 班列에서 落伍함이 없도록 하기 爲하여는 모든 科學者, 技術人의 熱心한 努力에 期待하는바 크다.

發明은 반드시 最高知識과 最高的 研究에서만 生産되는 것은 아니다. 科學의 最高水準에서만 發明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가장 些少하고 가장 卑近한 方面에서도, 또 極히 單調한 部面에서도 發明은 얻을 수 있는 것이니 思考의 融通自在한 活動과 技術面의 새로운 發展的 構想에서는 얼마든지 新發明을 生産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들은 20世紀의 後半期에 處하여 過去의 優越하였던 歷史的 遺物, 遺跡만을 자랑하는 것을 能事를 삼을 것이 아니라 現代에 있어 落伍者가 되지 않고 더욱 나아가서 現代에도 우수해야 되겠다. 過去의 그 時代의 것은 分명한 「자랑거리」이 있었지만은 오늘의 눈으로 보아서는 그가 자랑거리는 못된다. 過去를 過去의 눈으로 보지 말고 過去를 現在의 눈으로 보는 곳에서 우리에게는 더욱 偉大한 現代의 發展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 이 第1回 「發明의 날」을 맞이하여 創意民族의 燦然한 發明의 새로운 飛躍을 期待하고 싶은 것이다.

「發明의 날」을 行事하는 날로 보내지 말고 思考의 날, 構想의 날, 創見鍊磨의 날로 맞이하여 形式以上으로 結實의 實績을 나타낼 수 있는 創意의 날로 삼자는 것이다.

위와같이 盛大하게 치뤄졌던 發明의 날 紀念 行事는 1960년 4·19학생의거로 延期되는 非運을 맞아 1961년에는 5·16군사혁명까지 일어나 또 다시 延期되었다.

1960년 5월 19일 字 동아일보는 이 소식

을 다음과 같이 잘막하게 알렸다.

發明의 날 行事延期

연중행사의 하나인 발명의 날(5월 19일)의 행사는 다난한 시국때문에 무기 연기되었다.

그러나 1962년에 접어들어 시국이 안정되면서 또 다시 開催되기 시작한 發明의 날 紀念 行事는 그 어떤 法定 紀念日 行事보다도 성대하게 베풀어 졌다. 특히 이 行事에 대한 新聞·放送의 參與度는 실로 높았다.

동아일보·경향신문·서울신문·한국일보·조선일보(無順)등 中央 日刊紙는 물론 全國의 地方紙까지 文化 또는 科學面 曄 또는 全面으로 發明의 날 紀念 行事소식·지상좌담회·특별기고·紙上發明館·기타 등의 글을 실었고, 2面에는 發明의 重要性을 社說로 다루었다.

또 放送도 紀念式소식·發明의 노래 放送·라디오드라마 製作·放送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같은 言論의 參與는 1972년 第16回 發明의 날 紀念 行事까지 계속되었다.

最近 發明의 날 行事

1973년 3월 30일 國務會議 審議를 거쳐 公布된 「각종 紀念日등에 대한 規定」에서 發明의 날이 商工의 날에 統閉合된 것은 發明界는 물론 企業 및 관계기관에는 큰 不幸이었다.

16년 동안 쌓아올린 「發明의 탑」을 무너뜨리는 失策을 自招한 것이었다.

그처럼 대단했던 言論의 參與度도 서서히 낮아져, 끝내는 자취를 감춰버렸다. 發明에 대한 國民들의 熱氣까지도 서서히 식어갔다.

大韓發明協會와 商工部 特許局 그리고 뜻있는 企業人 및 發明家들이 舍心하여 草創期의 熱氣를 되살리려 했으나 力不足이었다. 그리고 이같은 상황은 1981년까지 계속

되었다. 이 기간동안은 한마디로 發明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發明의 重要性이 또다시 부상되고, 發明振興事業이 또다시 熱氣를 되찾게 된 것은 1982년 2월 9일 韓國特許協會가 韓國發明特許協會로 擴大改編되면서 부터이다.

韓國發明特許協會의 의욕적인 새 出帆과 함께 特許廳도 公告 第82-12號를 통하여 第5回 發明獎勵大會와 第1回 全國優秀發明品展示 開催요령을 公告했다. 이에 따라 1982년 5월 19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는 10년만에 全國發明獎勵大會가 열리게 되었다.

發明의 날 紀念 行事가 아닌 全國發明獎勵大會로 열려 다소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았으나 당시 金俊成副總理를 비롯하여 政府·產業界·發明人·一般國民등 1천여 명이 參席한 이날 行事는 축제분위기였다.

이날 行事를 本會는 發明의 날 부활을 念願하여 「第17回 發明의 날 紀念 全國發明獎勵大會」로 치루었고, 금년 5월 19일에

는 「第24回 發明의 날 紀念 全國發明獎勵大會」로 치를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다.

5월 19일 全國發明獎勵大會에 이어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우리나라 정부지원으로 처음 개최된 '82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가 韓國綜合展示場에서 있었다.

이같은 상황은 1989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全國初·中學生 發明 作文·만화 현상모집 행사는 자라나는 學生들에게 공부하며 發明하는 風土造成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初·中·高·大(전문大 포함)에 설치된 學生發明班의 활약도 크게 기대되고 있다.

이에따라 全國民은 물론 言論의 發明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한가지, 發明의 날을 法定 紀念日로 서둘러 制定하는 것, 바로 그것 뿐이다.

당국의 發明의 날 制定에 각별한 配慮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案

月刊「發明特許」原稿募集

內

本誌는 讀者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産業財産權 專門誌입니다. 製作에 讀者여러분의 幅넓은 參與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産業財産權에 관한 内容이면 무엇이든 歡迎합니다. 많은 投稿 바랍니다.

- ◎論 文 : 200字 原稿紙 20~50枚 (번역문 포함)
- ◎우리社의 特許管理 : 15~30枚 내외
- ◎發明成功事例(職務發明 우대) : 20枚 내외(추후 단행본으로 製作 됨)
- ◎나의 提言 : 10枚 내외(産業財産權法 改善사항에 한함)
- ◎工業所有權 수필 : 10枚 내외(外國視察記 포함)
- ◎기타(社內消息·新製品 紹介)
- ◎接受處 : 韓國發明特許協會 調查部 「月刊 發明特許」 編輯室
- ◎接受期限 : 수시접수